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전략

Adaptation Strategy of Family Life of Migration Woman by Marriage

성향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Hyang-Sook Sung(hssung@cup.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이 가족생활적응을 위하여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 어떠한 적응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서 이들의 실천적 적응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8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으로 가족 내 관계의 차원 즉 부부관계, 시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적응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부관계 적응전략에서 '착한 남편 바라보고 살기', '남편은 나의 편이어야 함', 시부모관계 적응전략에서 '시집식구 배제하기', '돌봄의 수용', 자녀관계 적응전략에서 '자녀를 결혼생활의 목표로 삼음', '지역사회와 통합', '부모로서의 권위 갖추기', '한국 사람처럼 가르치기', 심리적 적응전략에서는 '정체성의 유지와 변화수용', '자존감 지키기', '마음비우기'의 11개 주제와, 26개의 주제묶음, 76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 여성의 가족관계에 따른 적응전략의 본질을 밝히고 가족생활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결혼이민여성 | 가족관계 | 적응 전략 | 현상학적 방법론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drawing imp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daptation strategies of migration women by marriage. For this study, eight migration women by marriage were chosen and their adaptation strategies as a wife, daughter-in-law, and as mother to adapt themselves to family lives were observed. For th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adopted and their adaptation strategies were analyzed mainly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s within a family. Their adaptation strategies drawn in this study could be categorized into 11 themes, 26 theme bundles and 76 meanings. First, in relation to their husband, their adaptation strategies were 'to live relying on their good husband' and 'to think of their husband as their supporter.' Second, the adaptation strategies with regard to their parents-in-law were 'to exclude their husband's family' and 'to admit their caregiving.' Third, their adaptation strategies in terms of their relation to the children, were 'to set their children as the goal for marriage life,' 'to incorporate themselves with the local community,' 'to be equipped with authority as a parent' and 'to raise the children as a Korean.' In additi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strategies displayed their admittance of changes, maintaining their own identity, their sustenance of self-esteem and the resignation.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facilitate their adaptation to family life as well as the essence of their adaptation strategies.

■ keyword : | Migration Woman by Marriage | Family Relation | Adaptation Strategy | Phenomenological Method |

I. 서론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는 일정 기간 머물다가 떠날 것이 전제되지만, 결혼이민여성은 자녀출산, 시부모의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은 쉽지 않다. 결혼이민 여성은 입국과 동시에 특정 가족에 편입되어 살면서 가족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 결혼이민 여성이 처해있는 가족환경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대체로 낮다. 문제는 이것이 한국에서의 생활환경을 규정하는 일차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지역사회의 참여와 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배제될 수 있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1]. 결혼이민여성과 배우자간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갈등비율도 높은데 이는 가부장적 질서가 많이 남아있는 농촌거주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2]. 부부 권력관계의 척도인 경제문제의 의사결정에서도 시집과 남편의 의사결정비율이 높아 결혼이민여성의 가족 내 지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3]. 이외에도 결혼이민성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베트남 출신여성인 경우 15년, 조선족일 경우 7-8년 차이가 벌어지면서 아내의 남편 돌봄과 자녀양육이 병행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자녀양육에서도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들이 주양육자가 되면서 아동의 언어·지능발달이 늦어지고 결국 학교 학습의 장애를 초래하는 악순환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Lazarus는 적응에는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4]. 즉 적응이란 한 개인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가족가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실태조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가족구성원(남편, 시부모, 자녀)과의 갈등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극단적인 적응 어려움, 무력감 등의 문제점을 강조하였지만,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뒤에 숨겨진 지지체계의 존재 및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기술 및 방법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5]. 이러한 연구 상의 한계로 한국인 부부관계보다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높다거나[6], 결혼이민여성의 현실과 적응환경의 열악함 간에 벌어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을 둘러싼 가족환경에 대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대응전략이 어떠한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응에 관한 연구는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이 타당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환경의 지배적 영향력을 보다 강조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을 한국사회의 통합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보다 복지의 수혜자로 바라보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이 아내, 며느리, 어머니역할 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주체적 적응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국가족생활 적응의 실천적 적응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Berry는 적응(adaptation)이란 하나의 문화가 새로운 환경의 문화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7].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은 원문화와 현지문화의 차이에서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심리적 적응(정서적/감정적)과 사회문화적(행동에 관한) 적응으로 구분된다[8]. 심리적 적응은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의미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은 사회학습관점[9]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여 일상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은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10].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생활에서 겪는 적응의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문제, 가족문화 차이, 가족의 빈곤, 자녀양육의 문제이다[11]. 첫째,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결혼이민여성을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게 하며 심지어 남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극단적 감정표출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12]. 언어는 문화적 환경적 산물로서 결혼이민여성의 언어적 미숙함은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지만[13],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화가 다른 집단 간의 인식구조 혹은 세계관의 차이가 문제다[14]. 둘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남편/시집 구성원은 결혼이민여성이 겪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음식물과 언어가 다르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부싸움도 배우자의 개인적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15]. 부부싸움 후에도 20-30%의 결혼이민여성이 이혼을 생각해보았다는 응답이 있으나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16]고 하였고, Naidoo[17]는 지지적인 남편이 있는 여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다고 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빈곤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배우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내국인 수급자 3.1%의 1.6배 수준인 4.9%이며, 수급자의 35% 이상이 5년 이상의 장기수급자로 조사되어, 내국인보다 훨씬 열악함을 알 수 있다[18]. 넷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다. 자녀양육 책임은 언어와 사회관계가 미숙한 결혼이민여성들이 대체로 전담하게 되는데, 부모의 이중언어 사용으로 자녀의 언어습득 지체현상이 나타난다[19]. 그리고 자녀가 차별과 따돌림 당하는 것이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각지심으로 자신감이 없고 자녀문제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게 된다[20]. 이것은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나 권한이 축소될 우려를 낳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186명의 조사아동 중에서 41.0%가 발음으로 놀림 받았고, 36.6%가 가난한 나라출신이라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다. 심지어는 신고하겠다고는 협박을 당한 경우도 21%가 있었고 폭행을 당한 경우도 15%가 있었다[21].

결혼이민여성을 둘러싼 가족관계에 대한 적응전략에서, 윤형숙[22]은 결혼이민여성이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언어(영어)를 우월한 자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였고, 이용균[23]과 홍기혜[24]는 결혼이민여성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처한다고 하였다. Vaux[25]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의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적응의 어려움과 그에 대처하는 적응전략에 관한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가족생활 적응의 어려움도 자녀양육문제, 부부갈등, 고부갈등 등 가족관계에 따른 문제 중심의 연구가 상호연관성 혹은 통합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란 연구대상의 인식과 경험의 본질적 측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전략[26]으로, 현상 즉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판단중지(bracketing), 본질직관 등의 방법으로 사태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한다. 또한 판단중지를 통해 '있는 그대로'에 이르는 방법적 절차가 현상학적 '환원'인데, 그것은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는 작업'[27]이라는 의미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에는 Giorgi, van Kaam, van Manen, Colaizzi 등의 방법론이 있지만[28], Colaizzi 방법론은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철학적 기반을 가진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경험에서 그들의 적응전략의 본질을 도출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며, 본 연구는 이 방법을 따랐다. 세부적 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10. 4월부터 5개월간,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첫째, 참여자들이 가족과 살면서 느끼는 기쁨, 슬픔, 불편함 등 일상생활을 포착하기 위한 질문과 둘째,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 좌절 셋째, 삶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과 구체적 방법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진술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녹취한 진술을 성문화 한 후, 성문화된 자료와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진술문을 반복해서 읽었다. 반복해서 읽는 동안 유의미한 진술내용을 도출한 뒤,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s), 주제묶음(theme cluster)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의 주요 원리인 체험적(lived-experience) 원리 즉 경험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체험되는지에 주목하였고, 그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유하여 함께 나아갈 것인가?라는 사회복지학적 과제를 염두에 두었다.

분석범위와 내용은 가족생활에서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범주화하여 사회문화적 적응에서는 부부·시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의 적응전략을 살펴보고, 심리적 적응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생활적응에서 겪는 심리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정은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 중에서 언어습득과 가족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사회복지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여성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탐구대상이 되는 현상을 체험한 개인들을 중시하며, 자신의 의식적인 체험을 똑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19]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표 1.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나이	출신국	학력	자녀/시부모동거여부
A	49	조선족	고졸	1명/인근거주
B	28	베트남	초졸	1명/인근거주
C	36	태국	초졸	2명/ 동거후 분가
D	27	베트남	대졸	1명/ 동거
E	41	필리핀	고졸	2명/ 동거
F	40	필리핀	고졸	2명/인근거주
G	29	조선족	고졸	1명/인근거주
H	30	베트남	고졸	0명/ 동거후 분가

IV. 연구결과

1. 부부관계의 적응 전략

1.1 착한 남편 바라보고 살기

1.1.1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기

엄마랑, 아빠 아파서 돌아간 건 우리 신랑 열일곱 살.

엄마 돌아간 건 우리 남편 스무 살. 그러니깐 자기는 혼자서 동생 키우면서 컸죠. 그런 거 보고 하니깐 우리 신랑이 불쌍해요(참여자B) / 시간만 나면 바람쐬러가고 바다 다니고 산에 다니고. 그거 하나는 참 고마워요. 일 처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참여자A).

1.1.2 착한 남편 때문에 인내함

아저씨(남편)가 너무 착하잖아요. 여자는 사람보고 살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맨날 속 썩이면.. 텔레비보면 많잖아요. 없으니깐 참 힘들지만은,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지만, 나는 만족하고 삽니다(참여자A) / 분가하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살도록 남편이 무릎꿇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 어머니 제일 사랑해서 그래서 제가 분가 못하고.. 이해해요(참여자 D) /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왜냐면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우리 신랑 다칠 까봐. 참고, 참고, 참으면서 그래서 힘 드는 거예요(참여자H) /근데 괜찮은 사람(남편) 만났어요. 열심히만 살면 돼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 만났어도 그러면(폭행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참여자F).

1.2 남편은 나의 편이어야 함

1.2.1 남편의 지지를 요청함

아무도 집에 없으니깐 둘이 가서 얘기 낱고, 그렇게 했어요. 마음은 아파도 얘기는 출산했으니깐. 집에서 신랑도 내 얘기 낱을 때 도와주고 내 밥 챙겨 주고(참여자 B)/제가 그날따라 청소 안 해서, 시누이가 남편한테 잔소리했어요. 저를 위해서 남편이 시누랑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편이)최고야 했거든요(참여자D)/자기(남편)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울면서 시누이 왔을 때 '봐라,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내가 이 집에 뭐를 잘못 했어? 내 못하는 거 뭐가 있어. 가족이 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나? 내 도와주나?(참여자 H).

1.2.2 남편의 변화를 위한 맞대응

만약에 신랑 죽으면, 적은 각서 있잖아요, 그거 같이 (관에) 묻으라고, 각서 썼다가 TV나 컴퓨터 부수고, 살다 보니깐 각서 쓰는 일도 많고, 각서 써도 안 지키고, 우리는 인감도장 필요 없다. 바늘 가지고 와서 손가락 찢러서 피내서 손도장 찍고(참여자 C)/ 남편은 처음에 분가를 반대했죠.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도 내가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때 분가했지. 저도 분가 안 하면 신랑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참여자 D).

1.2.3 남편의 무관심에 저항함

나한테는 관심 없고 인형처럼 여기 딱 앉아 있어라 하면 임신 중에 얼마나 서운하다고요. 술 많이 마시고 놀고. 그날 밤에 한 열두시 다 됐어요, 제가 그냥 당장 바깥에 뛰쳐나왔어요. ○○까지 8킬로 정도 걸었어요(참여자C)/ 유산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유산 했을 때는 진짜 외로워요. 혼자 방에 누우면서 가족들은 밖에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내 혼자 안방에 누워 있어요. 점점 신랑이 실망스러웠죠. 어느 날에 신랑이랑 싸움 했어요(참여자H).

2. 시부모관계 적응전략

2.1 시집식구 배제하기

2.1.1 거리두기

머리 속에 등록해 놨던 것들,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시집 식구들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 요즘 따로 사니까 그나마 맨날 맨날 만나지 않으면 크게 시집도 안 나빠요(참여자C). / 우리 동네하고 시어머니 동네하고 그리 멀지가 않아요. 그냥 걸어가면 10분도 안돼요. 약간 떨어져 사니까 시댁식구를 더 작게 보잖아요. 자주 만나면 힘들어요(참여자G).

2.1.2 힘겨루기

제 성격에 마음이 안 좋아지면요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불러도 그래도 대답 안 했어요(참여자D) / 처음에 시집와서도 놓고 싶으면 놓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못

마땅했나 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밀고 나갈 때도 많고 그래요.(참여자A) / 시누이들이 일요일에 어머니 생신파티 해 주고 싶다고해요. 일요일에 다들 쉬지만 내 못 쉰다. 내가 (어머니)모시고 있으니까 그냥 금요일에 하자고. 그것 때문에 싸움 했다가요(참여자H).

2.1.3 시부모에게 저항함

‘어머니 저 베트남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니, 나가라’ 하고 막 큰소리 했어요. 저한테 따귀 때리고.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한테 욕했어요. 내가 시아버지 목도 잡고, 칼도 잡고(참여자D). / 저 지금 분가해서 전세 살 겁니다. 제가 먼저 살아야지. 지금 제가 돈이 없지만, ‘어머니 생활비 못주는 것 아니에요. 안 줘니다. 그리고 어머니 똑똑히 기억하세요.’ 저 똑바로 얘기 했어요(참여자H).

2.2 돌봄의 수용

2.2.1 돌봄의 어쩔 수 없는 수용

시누이, 시동생이 시아버지 몸이 약해서 오래 못 살아요. 좀 도와 달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도 아픈 사람(시아버지)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말을 안 좋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해요(참여자D). / 그때 우리 남편이랑 싸우면서 남편이(우리 싸우는 것 때문에) 시엄마 몸 아프면 어떡할 거야? 그때 우리 싸워 가지고 제가 가게 3일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 혼자 일하면서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 바로 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참여자E).

3. 자녀관계의 적응전략

3.1 자녀를 결혼생활의 목표로 삼음

3.1.1 자녀를 위해 결혼생활을 유지함

제가 ○○년도에 왔잖아요. 11월 20일 날 딸내미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확실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돈도 없고 집에 텔레비전 없고... 어쨌면 딸내미 빨리 안 나왔으면 빨리 갔을지도 몰라요(참여자 A) / 제가 이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비행기 표를 사고, 베트남 혼자 돌아갔어요. 그래도 저는 ○○때문에, ○○보고 싶어 또 빨리 왔어요. ○○없으면 다시 베

트남에 가고 싶어요(참여자D) / 애들 어려서 아빠 없으면 안돼요. 제 남편도 술 먹고 그런 거 있는데, 한 번씩 이혼 생각하지만 애들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참아야 돼요(참여자E) / 다른 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자식만 그냥 애들만 보고 살면 돼(참여자F)

3.1.2 돈보다 자녀가 먼저임

애들 공부 시키려면 어느 정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돈 못 벌어도 애 곁에 있는 게 낫겠다 생각 했어요. 다른 엄마는 무조건 고향에 친정 엄마 용돈 보내려면 회사 다녀야 돼지만. 그런 사람 생각 하면 진짜 안타까웠어요(참여자C)/ 예전에는 뭘 사면 고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돈 쓰는 게, 손이 더 커졌어요. ‘이거 하나 해주면 뭐 어때?, 지금 안 해주면 언제 해주나.’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한테 아무것도 안했을까?(참여자G).

3.2 한국 사람처럼 가르치기

3.2.1 교육이 최우선임

우리 아저씨도 공부 많이 못했지만, 우리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교육은 많이 시켜 줄려고 했거든요. 제가 항상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사니까, 니, 엄마 잘 보고 열심히 살아라, 배워라 하거든요(참여자A). /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애기 원하는 것 시켜줄 거예요. 왜냐면 내도 공부도 많이 못하고, 아빠도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애기 교육시켜 줄 거예요(참여자B) / 공사 할 때 마다 두 달 너머도 있고, 정확하게 월급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제가 아껴 쓰는 생활이 꼬박꼬박 애 학습지 돈 내는 거라.(참여자C)

3.2.2 한국 사람에게 지지 않기

저는 모르는 게 많고요. 한국수준에 떨어지는 거 싫거든요. 일단 말을 배워야 하니까 유치원을 일찍 보내라 하네요. 이렇게 살아도 애는 교육을 시켜야잖아요. 더 시키고 싶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참여자A) / 또 다른(한국) 엄마는 이거 저거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사는데 왜 나한테 이래 저래 시키냐고. 그냥 넘어 갈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내 새끼는 얼마큼 봐주

나?’ 그 생각하면 나는 이상해요(참여자C). /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것 많아요, 엄마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돈 모자라잖아요. 공부 시키고 싶은데 우리는 한국사람 아니니까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참여자F).

3.3 부모로서의 권위 갖추기

3.3.1 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지금 여성교실 다니고 부터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엄마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상하면 서도 좀 칭찬하는 그런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D) / 엄마가 외국인이니깐 더 무시하고, 그래 보는 거는 너무 못된 거잖아요. 자식이라는데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 열심히 배워요(참여자E)

3.3.2 모국어 가르치기

다른 애들은 다 돈 주고 배우는데, 지금 중국어도 유행이고. 한번씩 글(중국어)은 안 배우려고 하는데요. 싫어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참여자A). / 나중에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시면 남편하고 베트남에서 살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나라 말 시켜야 돼요. 제가 가르치면 말을 따라 안 해요. 집에서 많이 연습했는데 안 해요. 걱정이예요(참여자D).

3.4 지역사회에 통합

3.4.1 스스로 지역사회에 먼저 나아가감

바깥에 나가면, 할머니가 길가에 모여 앉아 얘기하면, 거기 제가 들어가서 앉아 놀거나, 손자 키우는 할매와 같이 대화하고 부탁도 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문 열어야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제가 문 안 열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 노력하도록 재호가 어린이집 가야 돼요(참여자C)/ 아무리 찾아봐도 애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놀이터 단지도 가보고, 학교도 가고, 길 건너 마트에도 갔어요. 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동네 모르는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어요. 같이 찾아달라고(참여자G).

3.4.2 지역사회에 내놓고 기르기

처음에는 종일반 아니면 2시 3시에 끝나잖아요. 장사하다가 가야하고. 그때 형님들, 옆에 아줌마 손님들 도움 많이 받았어요(참여자A) / ‘니 얘기하고 힘들어서 못 자니까 언니(동네가게 언니)가 봐줄게’ 하고. 한 두 시간 재우고 얘기 데리고 가라하면, ‘언니 그렇게 할게요’하고 말기죠(참여자B). / 저희 ○○이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한 번씩 조카들 따라서 집 앞에 교회 유치부 갔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신경 써 주고 또 자기가 처음에 갈 때는 힘들고 떨어지기 힘들는데 나중에는 혼자 간다고 하고(참여자G).

3.4.3 지역사회 서비스의 활용

제가 하는 소리가, 교회가면 그래도 애들 많잖아요. 부모 따라온 애들요. 그럼 친구도 사귄 수 있고, 그게 안 낫겠나. 하나라도 더 배울게 아니냐. 엄마같이 맨 날 집에 있어 봤자 배울게 뭐 있노(참여자A) / 지금은 멘토 이런 거 신청하면 어디서나 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선생님들도 조금씩 열려 가지고 이 정도 해주세요, 계속 상담했어요(참여자C) / 제가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면 말을 따라 안 해요. 집에서 많이 연습했는데 안해요. 걱정이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아줌마, 아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야기(한국어 연습) 많이 했어요(참여자D).

4. 심리적 적응전략

4.1 정체성의 유지와 변화 수용

4.1.1 자신의 정체성 지키기

누가 돈 주면 그냥 받아 두지 마라. 만약에 누가 빵 주면 혼자 받아먹지 마라. 다음에 우리가 있으면 다 갚아주는 편이라서 엄마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한국 와서도 그랬고 제가 만날 때 마다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참여자C). / 필리핀 이름도 자기 이름인데 바꾸면 좀... 한글로 바꾼다고 외모가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필리핀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래도 자기 이름 좋아요(참여자F). / 저는 약간 그래요. 남 들 딱 싫어하는 성격. 남이 듣기에 좋은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없

으면 그거 얘기 안 해요(참여자G). / 슬피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지금의 저 자신을 찾았어요. 옛날에 베트남에서 아주 활발했어요. 아주 재밌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노래해요. 혼자. 남의 생각 없이. 근데 한국 와서도 한 2~3년 정도 노래 안했어요.(참여자H)

4.1.2 모국정체성의 변화를 수용함

처음에는 약 같은 거 붙여 보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은 필요 없다했거든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약이 더 잘 맞는 것 같고(참여자A) / 결혼 뒤에 한국 사람이냐 외국사람 마찬가지로. 틀리는 것 없어요. 가끔 한 번씩 한국문화를 빨리 적응 하고 싶어 점점 강해졌죠. 솔직히 지금 강해졌어요. 안 그러면 한국에서 못삽니다(참여자H)

4.2 자존감 지키기

4.2.1 유능감을 가짐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마누라도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남편도 가장이지만, 저도 가장이잖아요. 저도 같이 가장할 자격 있잖아요(참여자A) / 나 이제 돈 관리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나 살림해야 되겠다. 왜냐면 ‘나 처음 한국 왔을 때 어머니 니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 한 3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그때 오빠(남편) 월급 타면 관리하고 생활해라 했지만, 지금 거의 2년 지났어요(참여자H).

4.2.2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후회 없이 살면 되지 뭐. 성과가 없는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참여자A) / 자꾸 힘든 거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좋은 생각하면 그거 따라 가잖아요.부모 생각하고, 애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무조건 생각해요.(참여자F) /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욕심대로 가면 자기만 망가지고 자기만 힘들고. 그럼 내가 힘들면 주위 사람도 따라 힘들고, 내가 좀 좋게 생각하면, 나도 늘 기분 좋고 아이도 기분 좋고(참여자G).

4.2.3 외로움을 이겨냄

임신 중에 얼마나 서운하다고요. 나한테는 관심 없고 인형처럼 여기 딱 앉아 있어야라고 자기는 술 많이 마시고 놀고 아내에게 관심 별로 없는 편이네요. 그날 밤에 한 열두시 다워서 그냥 당장 바깥에 뛰어나왔어요. 집에서 합천까지 8킬로 정도 걸어갔어요(참여자C) / 유산 했을 때는 진짜 외로워요. 몸 아픈 만큼 마음도 아파요. 내 혼자 안방에 누워 있어요. 가족들은 밖에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점점 신랑이 실망스러웠죠. 어느 날에 신랑이랑 크게 싸움 했어요(참여자H).

4.2.4 배움

뭐라도 배우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 왔으니깐 한국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A). / 신랑도 같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 이제는 내가 부담감이 크구나. 내 어깨가 무겁구나.’ 내가 빨리 알아 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하지. 제가 그 때부터 안되겠다. 다시 공부 시작해야지 했어요(참여자C) / 처음에는 이렇게 복지관이라 한글 가르치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지하철타면서 광고 있잖아요. 한글교실.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남편보고 나 한글교실 간다고. 임신했을 때, 나 혼자 갔어요. 안 그러면 내가 담당하니까, 내가 제일 담당하니까(참여자G).

4.3 마음비우기

4.3.1 신앙으로 위로받기

믿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한번 씩 친구 따라 가는 거고, 그냥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마음이 한번 씩 힘들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A) / 절에서 부터님에게 혼자서 빌고 부처님한테 얘기하고. 대개 힘든 건 아무거나 얘기 못하면 절에 가고. 절에 빌고 울고. 내 지금 이거 좀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마음 너무 편해요(참여자B) / 친정에 필리핀 있을 때는 잘 다녔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해요. 저 진짜 잘 울어요. 종교가 제일 중요해요. 어릴 때 믿음 있으니까

(참여자F).

4.3.2 체념하기

제가 밖에 가면 제일 좋아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전에 토요일에 교회 가면 친구에게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얘기 했어요(참여자D)/ 내가 말해도 누가 해결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와서 해결해주나? 그냥 말하면 내가 한 번 더 속상하고. 그게 습관 되서 그런가 봐요.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잊어버리고(참여자G).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1.1 부부관계의 적응전략: 포섭과 연대

다른 문화 간의 적응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은 부부관계의 갈등 및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30],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잘 표현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편의 과거 고단한 삶을 이해하면서 남편의 선의를 믿고 자신의 현실적응의 어려움을 인내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남편 이외에는 자신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 정보, 네트워크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지지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출산과 같은 생애사의 전환기적 사건부터 청소·빨래 등 일상 과업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 시, 남편의 지지가 필요하였다.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에 대하여 저항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적극적 배우자 이해의 노력은 어쩔 수 없는 수용의 형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분가, 도박,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적 사건들(참여자C,D,E) 앞에서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양자결단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이혼과 같은 가족 해체적 성격이라기보다 남편의 전면적 변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남편에 대한 깊은 이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지, 가족위기 시의 남편의 전면적 태도 변화요구 등은 시부모와의 관계와 질적 차별성을 보인다. 시부모에게는 거리두기-힘겨루기-저항하기 같은 배제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반하여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은 나의 편이어야 한다는 포섭과 연대의 원리가 작용하였다. 이것은 결혼이

민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하여 친정/친지의 지원과 조정 등 여타의 주체들과 연계된 네트워크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 부부의 가족관계 만족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31]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1.2 시부모관계의 적응전략: 배제

결혼이민여성과 시부모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의 핵심은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 며느리에게 시집중심의 가족문화는 폐기되어야 할 관습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로 남녀평등의식이 발달한 국가(조선족, 베트남 등) 혹은 모계중심 국가(필리핀 등)에서 살다온 결혼이민여성에게 전통적 한국인 며느리 역할에 대한 적응 요구는 어려운 도전으로 인식된다. 극단적으로는 시부모를 폭행하는 사례(참여자D)처럼 저항하기도 있었지만, 시부모와의 관계는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부모관계를 전면적으로 악화시키기보다 거리두기, 험겨루기를 사용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현명함을 보였다. 이처럼 시부모에 대한 적응은 배제적 성격이었으나, 며느리에게 기대되는 늙고 아픈 사람에 대한 돌봄이라는 가부장제적 윤리 앞에서,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편-포섭/시부모-배제 적응전략처럼 관계의 차원이 다르면 적응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배제전략의 경우, 남편-시부모-자녀의(확대)가족관계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특히 도시보다 농촌에서 확대가족의 유형이 더욱 많다고 할 때, 시부모 배제전략과 남편 포섭전략은 상충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족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입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시부모의 돌봄역할은 대체로 며느리에게 전가되는데, 결혼이민여성의 배제전략의 연장선에서 최소한의 돌봄역할 수행이 이루어질 때 돌봄의 질적 저하와 노인학대 우려가 제기된다.

1.3 자녀관계의 적응전략: 지역사회통합

결혼이민여성에게 자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한국생활의 심리적 거점[32]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동일하게 자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목표가 되며, 친정에 송금하는 것보다 자녀양육을 우선하였다. 또한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자녀의 성공적 삶과 직결되며, 그것을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성공의 척도로 인식하였다. 참여자 스스로가 말하듯이, 자신들은 한국 엄마보다 지식과 여건이 부족하지만, 경쟁하듯이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한 전략의 내면에는 한국사회의 과도한 교육기준에 대한 중압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다는 연구[33]와 상치되지만, 전홍주 등[34]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한국 엄마에게 뒤지지 않는 교육열의를 보이면서 자녀들에게도 권위를 세우고 당당하게 모국어 가르치려고 하였지만, 자녀들은 소극적이었다. 자녀의 소극적 태도는 가족에서 어머니의 낮은 지위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이 반영됨에 기인하지만, 참여자들은 그러한 자녀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어 학습 등 적극적 한국사회 적응전략으로 대처하였다. 이와 동시에 참여자들은 자녀를 지역사회에 내놓고 기르며, 자녀와 함께 자신도 지역사회에 개방적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종교기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이 문화배경과 가치관의 이질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위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정천석·강기정의 연구[35]와 다르다. 즉 스트레스원을 감소시키는 방식이 결국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을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적극적 지역사회 통합 적응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스트레스원의 감소보다 이들의 적응을 적극 지원할 수 있

는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4 심리적 적응전략 : 자아정체성 강화

연구 참여자는 개인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 성격, 기질을 유지·회복하고자 하였다. 반면, 모국문화와 모국의 정체성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편견에 저항하기도 하지만 점차 수용적으로 적응하였다. 기존의 문화적응 관련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가를 기준으로 결혼이민여성의 동화 혹은 통합을 구별하였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민족정체성보다 개인의 정체성 유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이들이 가족에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주민으로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사회적응을 위해 학습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적응전략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적응을 위한 과정에서,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또 다른 장벽을 만날 때는 체념하거나, 종교에 의지하였다. 이러한 ‘마음비우기’는 내면의 승화로써 가족해체 혹은 자포자기적 지향과는 달리하는 전략이다.

개인의 심리적 적응전략 즉 ‘정체성의 유지와 변화’, ‘자존감 지키기’, ‘마음 비우기’처럼 자신의 내면으로 귀결되는 적응전략은 가족 내 대상에 따른 적응전략 간의 갈등을 조정·통합하거나 혹은 특정한 적응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적응전략은 부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자녀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적응전략을 보이게 된다.

2. 결론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가부장제에서 결혼생활의 열악함과 무력감 등을 드러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지체계와 생존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사태의 본질’을 추구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가족의 관계에 따른 적응전략의 본질적 속성을 밝힘으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은 자녀와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전략으로 한국사회 적응을 도모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남편과는 포섭과 연대, 시부모와는 배제를 통하여 가족구조의 재편성을 도모하였다. 이것이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취하고 있는 포섭/연대, 배제, 지역사회 통합, 학습 전략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확인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 적응을 위한 강점관점의 실천적 개입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결혼이민여성의 적응력 향상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되었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강점관점의 접근과 스트레스 원 제거의 동시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결혼생활 유지의 목표로 자리 잡은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결혼이민여성은 사회적 자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나가는 전략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① 결혼이민여성의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한 남편 및 시부모의 지지체계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친지와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가 제한되어 있는 여건에서 가족으로부터 자녀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사실은 결혼이민여성의 과중한 자녀양육 부담을 의미한다. 올 3월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자녀양육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 및 사회서비스로서의 돌봄 서비스 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자녀양육과 교육을 매개로 결혼이민여성도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고자 하였다. 이것은 결혼이민여성의 언어교육, 육아, 생활적응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별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지역사회를 통한 가족으로의 서비스 제공방식

이 서비스 접근성, 통합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낮은 경제적 수준이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기회를 제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경제적 여건의 개선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이민여성이 취하고 있는 시부모관계에서의 배제전략은 남편과 자녀양육에서의 적응전략과 갈등적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해 결혼이민여성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고자 하는 욕구와 배제전략의 대상이 되는 시부모가 며느리의 외출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충돌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시부모의 며느리 외출 통제는 결혼이민여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어려움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또한 고부갈등은 향후 노인 돌봄과 노인학대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시부모에 대한 배제전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을 통하여 전체 가족의 통합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완화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의 종교에 대한 의지는 가족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뿐 아니라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보다 개인의 내면적 승화 방식으로 가족문제를 끌고 가는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족해체의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정되고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이러한 위협적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윤혜미,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4호 pp.85-108, 2009.
- [2] 설동훈, *국제결혼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적응과 폭력사이*, 2008.
- [4] R. S.Lazarus, The Stress and coping paradime. In C.E.Eisdorfer, D.Cohen, A. Kleinman & Maxim(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logy, N.Y: S.P.Medical & Scientific Book, pp.177-214, 1981,
- [5] 최금해, “조선족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제72권, 제1호, pp.143-188, 2007.
- [6] 김승권,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7] Berry,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pp.291-326 in Handbook of Cross Cultural Psychologyvol.3 (2nded) edited by Berry ,Segall and Kagitcibasi, Allyn & Bacon, 2005.
- [8] War, “Acculturation” 124-147 in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2nded), edited by D. Landis, and R. Bhagot. Newbury Park Ca: Sage, 1996.
- [9] Furnham and Bochner, Culture shock: Psychology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s. Methuen, 1982.
- [10]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7.
- [11] 김오남, *국제결혼이민자의 이해*, pp.117-118. 2008.
- [13] 양철호,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권, 2003.
- [14]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7.
- [15]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pp.195-243, 2006.
- [16] 김승권,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17] J. A. Naidoo, cultural perspective on the adjustment of South Asian women in Canada. In I.R.Languenes and Y.H. Poortinga(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al, Lisse., Swets & Zeitlinger, 1995.

[18] 원희목 국회의원, 국감보도자료, 2009. 10.8.

[19]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0] 김형균,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지원방안”, 다문화 사회의 전개와 지역적 대응 심포지움 자료집, 2007.

[2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아동 교육권실태조사, 2010.

[22] 윤형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23] 이용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39권, 제4호, pp.479-504, 2007.

[24] 홍기혜,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0.

[25] A. Vaux and J. Corbin. Social su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raega Publishers, 1998.

[26] P.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 it,” 48-71. In R.Valle and M. King edit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sychology. Oxford Univ. Press, 1987.

[27]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 출판부, 2004.

[28] 신경림,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대출판부, 2004.

[29]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1998.

[30] K. H. .Nah, Perceived problem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Vol.38, No.3, pp.289-296, 1991.

[31] 김승권,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2009.

[32] 김상임,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

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pp.17-48, 2004.

[33] 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실태조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06.

[34] 전홍주, “결혼이민자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9권, 제3호, pp.161-186, 2008.

[35] 정천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1호, pp.5-23, 2008.

저 자 소 개

성 향 숙(Hyang-Sook Sung)

정희원



- 1992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 사회, 결혼이민여성